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자(老子)는 ㉠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民莫之令而自均].”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시각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 혹은 기업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자 정치철학의 문제는 ‘거대 국가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억압 구조를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층적 관료 기구를 만들게 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층위를 이루게 되면서 관리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노자는 거대국가에 반대하였는데[小國寡民], 이는 조직을 작은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 비트코인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유되는 화폐로서 인쇄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 화폐는 국가가 그 가치를 결정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효율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는 다르다.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 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64자리의 해시함수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 경제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유란 강제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로, 정부는 이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을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 정도로 한정하였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앙 계획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중앙 계획 당국은 계획의 확대를 통해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되지만, 중앙 계획이라는 목표에 대해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를 충분히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 계획이 실시되면 사회적으로 반발이 확산되기 마련이며 이를 제압하려면 폭력적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중앙 계획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폭력성을 지적하며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시장 옹호론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시장 질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그 어떤 의도된 계획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뒷면에 계속)

(라) 시장 근본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활동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계약에 기초한 거래관계로 이해하고 화폐라는 단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과 경제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시장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경우 사회 전반에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시장 근본주의는 너무도 강력해서, 이에 저항하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도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다. 오히려 시장 근본주의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단순한 것이다. 도덕과 윤리라는 커다란 문제를 제쳐두고 경제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시장 근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이고 금융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무질서 상태가 빚어지며 결국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근본주의: 자유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태도.

(마) 네덜란드는 이미 17세기 초에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호황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실물 상품은 물론이고 주식, 외환, 신용대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에 상인들은 시장에서 다른 투자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내 눈을 돌린 것이 튜립이었다. 희귀한 튜립은 무척 비싸서 튜립의 보유 여부가 부의 척도로 간주되어 부유층이 앞 다투어 희귀종을 찾았다. 이에 네덜란드 전역에서 튜립 확보 전쟁이 일어났다. 게다가 튜립 재배는 좁은 집에서 사는 네덜란드인들의 취향에도 딱 맞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꿩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튜립 재배에 모든 것을 걸었다.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634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튜립 뿌리 거래에 참여했다. 튜립 뿌리는 양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수가 한정되었고, 수요가 몰리자 가격이 급등했다. 튜립 뿌리를 사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영주는 물론 장인, 농민들도 투기에 참여했다. 희귀한 튜립 뿌리 중 어떤 것은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1637년 2월 첫째 화요일, 하를렘발 빅뱅(big bang)이 터졌다. 사람들은 이제 튜립 뿌리의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튜립 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자 순식간에 거품이 꺼졌다. 4개월 만에 최고점에서 95% 내지 99%가 빠졌다. 어음은 부도나고 3,000여 명의 채무자들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1-1.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의미를 제시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250자 ±20자) [15점]

1-2. 제시문 (라)와 (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나저나, 아까 그쪽에서 구매팀 강은상이 얘기했지?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그게 부럽나? 그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지? 알고 보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 (중략) … 강은상이가 그 나이에 수십억을 벌었다? 그게 요즘 시대로 치면 소년등과*나 마찬가지로인 거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어린 여자애가 노력도 없이 그렇게 큰돈을 쥐었다는 게, 그 시기를 다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영 좋아 보이지만은 않거든. 그 친구, 조심해야 될 거야. 유혹도 많을 거고,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나이 때에 맞게 겪어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개가 몇살이래? 서른? 하이고…… 한창 일 배우고, 인맥 쌓고, 경험 쌓고 그런 거 해야 할 나이에, 큰일이다 정말. 아참, 다행이! 아, 뭘 그렇게 깜짝 놀라? 다행이 강은상이랑 친하지 않아? 맨날 점심 따로 먹겠다고 하고 나가서 개랑 먹더만. 둘이 친구지? 그래, 친구로서 조언을 잘해주란 말이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충고를 꼭 해줘. 요즘 애들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다행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마에 손등을 붙이고…… 새색시야? 왜 갑자기 나한테 절하는 거야?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이 정도 애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야, 누가 벌써 이렇게 먹인 거야? 저기, 다행이! 정다해! 뭐야? 애 지금 절한 채로 잠든 거야?

*소년등과(少年登科):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일.

(나)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교육과 행정언어를 통하여 표준어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공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각 지방의 지역어로 집필하거나, 공문서를 각 지역의 지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언어 공동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규율 내용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이 판결에 대한 소수의견 중 일부이다.

서울 이의 지방의 각 ㉠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전승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과 특히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지방방언에 의해서도 친근감을 느끼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다) ㉡ 나는 중학교 때는 일제의 잔재로 여겨지던 교복을 입었던 마지막 세대였고, 대학시절에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맞으며 민주화를 위해 맞섰던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였다. 대학시절 내내 선배들로부터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철부지로 불렸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난데없이 소비와 향락문화의 아이콘이라는 X세대가 등장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다. … (중략) …

고작 몇 살 차이일 뿐인데, 386세대라 불리는 선배들과 X세대라 불리는 후배들 사이에 끼여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도 있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 발달에는 분명 우리의 공도 있는데 알아주는 이는 없었으니까. 윗세대들은 우리를 가리켜 자신들이 바친 청춘의 ‘수혜자’라며 자신들과 구분하여 생각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암울해 보이는 자신들의 미래가 기성세대 때문이라며, 우리를 윗세대와 한데 묶어 원망한다. … (중략) … 오랜 친구들과 때때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신세 한탄이 늘어지곤 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힘에 부치는 경험은 우리 세대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뒷면에 계속)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길 들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공존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 하버마스는 수많은 의견이 갈등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대화와 타협, 담론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담론이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였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버마스는 그의 『담론 윤리의 해명』에서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 1820년대 그린란드 북서쪽의 이누이트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노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이 만든 물건까지 모두 무덤에 넣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을 휩쓴 돌림병 때문에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노인들은 물론 그들이 만든 물건까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마을에는 그동안 노인들이 만들어 왔던 카누, 카약, 작살, 화살 등의 제작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생존에 크나큰 위협이었고,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40년이 지나서야 다른 섬으로부터 이누이트족이 들어오면서 예전 기술이 복원되었다.

이렇듯 인간사회의 질서는 전통과 문화, 관습, 제도 등을 통해 과거로부터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안정은 그 사회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위를 필요로 한다. 세대 간 단절과 불통, 갈등은 이러한 권위와 전통, 문화, 관습, 제도가 내재적으로 축적해 온 인류의 지혜로움과 익숙함을 훼손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권위주의는 위험하지만 권위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동등하게 소중한 합리적인 개인들 간의 상호존중과 대화, 합의도 중요하지만, 권위를 지닌 자에 대한 존중과 따름도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움과 익숙함이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거대한 사회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불안과 소외 및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나)의 ㉠ 지역어와 제시문 (다)의 ㉡ 나가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판은 오늘이 양력으로 선달 스무나흘날이니까 크리스마스이브임에 틀림은 없다.

“저도 그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이가 오늘 밤,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구나.” / “이 추운 날씨예요?”

“응?” / “감기가 들 겁니다.”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니?”

... (중략) ...

“아무튼 내 생각은 외박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점이 가장 중요해.” / “글쎄 아빠는 그저 안 된다니 왜 안 돼요?”

“그럼 내가 물겠다. 옥아 넌 교인이던가?” / “아이 참 누가 교인이래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어쨌다는 거니?” / “크리스마스니깐 그렇죠.”

“뭐가?” / “크리스마스지 뭐긴 뭐야요?”

... (중략) ...

“크리스마스면 예수가 난 날이라지. 예수교인이면 밤새 기도두 드리고 좀 즐겁게 오락도 섞어서 이 밤을 보내도 되련만 온 장안이 아니, 온 나라가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야단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버님 손 데시겠어요.”

아버님은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치사를 하였다. 나는 아버님이 군자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

“창피한 일이 아니냐?” / “글쎄요.”

“창피한 일이다. 정신이 성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 ㉠ 넌 남의 제사에 가서 곡을 해본 적이 있느냐?” / “뭐, 없어요.”

“그것 봐라. 원래 옛날에는 종족마다 수호신이 있지 않았니? 그래서 한 해에 한두 번씩 제사를 크게 차려서 신을 위로했지. 옛날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굴복했다는 증거는 정복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지.”

나는 아버님의 말씀을 잠깐 중단시키고 말했다.

“㉡ 아버님, 말씀이 좀 불온해지십니다.”

“불온하다니? 애가 너는 나를 사상적으로 몰 생각이냐?” / “사상적으로라뇨?”

“그럼 불온하단 건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와들와들 떨었다.

(나) 여자와 남자는 대학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벌써 네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첫번째 크리스마스 때, 여자는 남자에게 한마디 말도 않고 시골집에 내려가버렸다. 남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닐까, 통화가 안 되는 휴대 전화를 붙들고 끙끙했지만, 여자가 낙향한 이유는 단지 ‘옷이 없다’는 거였다. 여자는 진심으로 우울해했다. 오빠와 한방에 사는 처지에 옷이나 장신구가 많을 리 없었다. 학비를 모은 뒤 남은 돈으로 멋을 부려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블라우스를 사고 나면 그에 어울리는 치마가 없고, 치마를 사고 나면 신발이 없었다. 여자의 옷차림은 스카프를 둘러맨 오리처럼 어정쩡한 구석이 있었다. ... (중략) ... 두번째 크리스마스 땐 남자가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자는 그날 서울에 있었다. 옷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남자는 졸업 후 일년 동안 취직을 못한 탓에 여자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다. ... (중략) ... 언젠가 몹시 춥던 겨울날, 코트 살 돈이 없던 남자는 양복 위에 노란색 오리털 점퍼를 걸치고 면접에 갔다. 남자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남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시험 때마다 ‘불을 듯 말 듯’한 성적으로 떨어진다든 사실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격려해주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 나를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책했다. 그러다 온갖 연말 청구서가 몰아치는 12월이 되었고, 한 번 더 시험에 낙방하고 생활비도 거의 바닥났을 즈음— 말하자면 역병처럼 크리스마스가 돌아온 것이었다.

(뒷면에 계속)

(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기념일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배경에는 서구적인 것에 대한 추종이나 선망과 같은 맹목적인 서구 추수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서구 추수주의는 근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해방 이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미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됨으로써 구체적 실물에 대한 모방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한국 사회에서 보다 특별한 축제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야간통행금지제도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존재한다.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 사회에 발효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대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의 시간동안 일반 국민들의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서, 한국 사회의 폭압적 규율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의 국가 권력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근거로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활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남북 대치 상황의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일상의 영역에 대한 억압적 규율을 정당화하였다. 1982년에 가서야 단행되었던 통행금지 해제의 배경 중 하나가 신체의 자유 보장 및 군사 정권의 억압 심리 해소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른 방식의 억압과 규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일상화·전면화된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기독교·서구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에 통금 해제를 적용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것 자체보다 크리스마스에 야간 통행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크리스마스를 한국의 특별한 풍속으로 위치시키는 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라)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대 내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031만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고작 64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확대됐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소비 또한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 도움 등으로 주택을 매입해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많은 일부 청년들이 명품 등 고가품을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는 반면, 소득 및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의 소비 심리는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세대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마) ‘빨갱이’에 대한 공포와 그것의 재생산은 ‘불온한 것’에 대한 통제에 국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위장하며 숨어있는 간첩 등의 ‘불온분자’들을 색출하여 고발할 의무와 함께 자신이 언제라도 ‘불온분자’로 고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불온분자’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로 ‘빨갱이’와 ‘간첩’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불온성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이는 반공 국가의 통치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빨갱이’에 가까운 불온한 존재로 취급되곤 했다. “반미 사상의 고취를 통한 한미 유대 이간”을 꾀하는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작가 남정현이 반공법에 의해 기소된 소위 「분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3-1. 제시문 (가)의 ‘옥이’의 크리스마스는 제시문 (다)를 활용하고, 제시문 (나)의 ‘남자’의 크리스마스는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가)의 ㉠에서 ㉡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된 맥락을 제시문 (다)와 (마)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